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5년내 7兆 전망... 대기업 투자 줄이어

국내 기업들 인프라 확장 속도
SKT 930평 '팀 스튜디오' 선배
CJ ENM 13동 스튜디오 센터 개관
넥슨 '실감형 미디어센터' 조성 나서
삼성·LG LED 사이니지 기술 고도화

7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에서 기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 CJ ENM, 네이버, 넥슨 등 IT 기업들은 최근 경기도 일대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해 영입에 나섰다. 조만간 센터 조성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위한 LED 사이니지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세계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은 올해 26억 달러(3조7122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7년에는 51억 달러(7조2817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속속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SK텔레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3050㎡(약 930평) 규모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인 '팀(Team) 스튜디오'를 선보였으며, SKT는 조성된 스튜디오로 팀 스튜디오와 국내외 스튜디오 간



팀 스튜디오에서 대형 LED 월 스테이지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모습. /SKT

의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튜디오를 오픈한 후 연예기획사, 콘텐츠제작사, 패션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과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의 내부 행사 관련 협업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스튜디오는 U자 형태의 '볼룸 스테이지(길이 21M x 높이 5M, with LED 플로어)'와 'XR스테이지(길이 5M x 높이 3M, with LED 플로어)' 등 2개의 'LED 월(Wall) 스테이지'를 갖춰 제작 콘텐츠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SKT는 팀 스튜디오의 핵심 가치로 다양한 스튜디오와 초연결을 주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혁 SKT 글로벌 미디어지원 담당은 "팀 스튜디오는 SKT의 유무선·AI·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기술을 접목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 ENM은 올해 경기 파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를 개관했다. 첨단 제작 인프라인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등 총 13개 동의 스튜디오를 갖췄으며 실내 스튜디오, 야외 오픈세트 등을 갖췄다.

이 스튜디오 센터는 구축에만 2000억 원 정도를 소요했으며 축구장 32개와

맞먹는 21만2883㎡ 규모로 건립됐다. 실내와 야외를 넘나들며 원스톱 촬영이 가능하다.

넥슨은 합작법인 YN Culture&Space(YN C&S)에 150억원을 출자해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의 '의정부리듬시티'에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에 나선다.

YN C&S는 넥슨과 YG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위지웍스튜디오, 엔피 등이 미래형 문화 콘텐츠 산업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각사가 보유한 IP(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VFX(시각효과)와 XR(확장현실) 기술을 결합해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를 조성하기로 했다.

I-DMC는 1000평 규모 초대형 스튜

디오 3동, VFX 스튜디오를 포함한 600~800평 규모 대형 스튜디오 2동 등 총 5개동의 멀티 스튜디오 공간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버추얼 스튜디오 수요에 대응해 LED 사이니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CJ ENM과 공동으로 마이크로 LED 기반의 디스플레이 '더 월'이 설치된 'CJ ENM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CJ ENM 스튜디오 센터 내에 조성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 설치한 초대형 더 월은 가로 32K와 세로 4K(3만 720x 4320) 초고해상도에 지름 20m·높이 7m·대각선 길이 22m에 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약 1650㎡ 규모 스튜디오 전체를 타원형으로 감싸는 형태로 들어섰으며, 360도 영상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 천장에는 약 404㎡ 면적 고화질 LED 사이니지를, 입구 쪽에는 천장과 같은 스펙을 가진 슬라이딩 LED 스크린을 설치했다.

LG전자는 지난 2월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 센터를 오픈하고 버추얼 스튜디오에 최적화된 LED 디스플레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브이에이코퍼레이션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형 LED 사이니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EMI,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 설립

삼성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온실가스 저감 맞손

SK하이닉스, AMD 등 64개 기업 참여
 협력, 투명성 등 세가지 공동 목표 설정

반도체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국제반도체재료협회(SEMI)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을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된 글로벌 협의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진썬미켄을 비롯한 전세계 64개 기업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AMD와 인텔, TSMC를 비롯해 AMAT과 ASML 등 장비업체, iMEC과 글로벌웨이퍼즈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 기업들이 포함됐다.

컨소시엄은 ▲협력 ▲투명성 ▲목표 설정 등 3가지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다.

컨소시엄은 파리협정을 지지하며 반도체 공급망에서 기후 변화를 주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오는 8일부터 10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 참여해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SEMI의 CEO인 아짓 마노차는 "다양한 기업들이 탈탄소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우리는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해야 된

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공급망의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발족한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에 가입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탈탄소화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MI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부사장인 무수미 바트 박사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 창립 멤버 모두는 우리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의미 있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위메이드, 660억 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MS 참여

위메이드가 660억원(약 46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신한자산운용과 키움증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했다.

금번 투자는 불확실한 거시환경 및 심화된 장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 금융 투자자들과 해외 전략 투자자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유치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수한 성과를 올려온 명망있는 금융 및 전략 투자자들이 참여한 의미 있는 투자"라며,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 장기적인 관점의 파

트너십은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00년에 설립된 위메이드는 인기 IP(지식재산권) '미르의 전설'에 기반한 <미르4>를 포함한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어, <미르4> 글로벌을 세계 최초 웹메이드 대작 블록체인 히트 게임으로 성공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WEMIX 3.0(위믹스 3.0)을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100% 담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플랫폼 WEMIX.Fi(위믹스파이)를 선보였다. 또한 NFT와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결합된 신경계 플랫폼 NILE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호석화, 여수제2에너지사업장 'ZWTL' 골드 등급 획득

(폐기물 매립 제로)

금호석유화학은 여수제2에너지사업장이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 전문기관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알렸다.

UL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로서 사업장별 폐기물 재활용률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5~99%), 실버(90~94%) 등급 순으로 부여된다.

금호석유화학 여수제2에너지는 지난

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 9만 8315톤 중 9만 5836톤을 재활용하며 재활용률 97%를 달성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여수제2에너지 ZWTL '골드' 등급 인증을 시작으로 전사 10개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왼쪽부터) 남정우 금호석유화학 안전환경기획실장과 박재욱 금호석유화학 에너지공정장이 UL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제주항공, 부산발 국제선 운항 확대

세부, 치앙마이 노선 등 운항 재개

제주항공이 오는 11월 8일부터 부산~세부 노선을, 11월부터는 부산~치앙마이 노선을 재운항 하는 등 부산발 국제선을 대폭 늘려 부산지역 여행객들의 여행 편의 개선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11일부터 주 7회(하루 1회) 일정으로 부산~치앙마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부산~다낭/괌 노선도 지난 10월 30일부터 주 7회(하루 1

회) 일정으로 재운항을 시작했다.

특히 비자면제 조치 시행으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등의 일본 노선을 매일 2회씩 증편 운항하고 가족여행지로 인기 높은 베트남 다낭 노선의 경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오전 시간 출발편을 운항함으로써 부산지역 여행객들의 여행 스케줄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